

< 질문 1에 대한 답변 >

가. 기부금 모금 방법

- 기부금 모금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모금액의 10% 정도 비용을 들여 모금 조직을 체계화 하는 데 투입할 것입니다.
 - 모금 전문가 영입
 - 모금 조직의 확대
 - 모금 네트워크 구성
- 동문, 대기업 중심의 모금원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 대대적인 장학금 모금, 자선기금(Charity fund), 의료선교와 교육사업 등 학교 이미지를 개선하는 목적의 기부금 모금에 우선순위를 부여
 - 해외 동문 조직 활용방안 강구
 - 15개 이상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감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부금 모금을 확대
- 기부금 모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연세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세 동문 중심으로 금융, 부동산, 주식 전문가들로 자산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이사회에 건의하겠습니다.

나. 기부금 모금 총액

제가 총장이 되면 송도 캠퍼스 개발재원 8천억원과 기존 캠퍼스(신촌, 의료원, 매지, 일산)를 위한 2천억원 등을 합하여 순수 기부금 1조원을 모금하겠습니다. 송도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추진하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진척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송도 프로젝트 재원 조달은 Project Financing(PF)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체 PF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확보해야 할 최소 8천억원 전부를 인천시의 기부 채납으로 충당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으며, 몇 천 억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 채납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송도 캠퍼스 추진을 위한 재원의 충당은 전체적으로 새 총장의 몫입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며, 부족분은 '별도의 모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

가. 본인은 이번 선거에서 핵심단어로 제시한 '품위 있는 개혁'을 위해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누구나 사립대 최고 수준의 급여를 원하지만, 이는 학교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재임 기간 중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년 경쟁 대학 상승률을 상회하는 봉급 인상을 통해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대학 최고의 급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직원들의 귀한 자녀들의 유아보육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행정대외부총장 재임 시 유아보육시설 기부금을 유치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 아울러 타 대학 재학 자녀들의 교육비 보조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세워 연세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나. 이미 공포된 ‘연세비전 2020-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는 직원들의 ‘경쟁력 있는 전문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인은 굳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 1) 기존 해외 연수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직원 전문화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2) 직원들의 교육수요(needs)를 파악하여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석사·박사 과정 교육제도를 예산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쟁력 있는 직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3)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에 직원들의 교환근무를 통해 선진 행정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하면 국내외 대기업에 업무습득을 위한 단기 파견근무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 또한 직원들이 각자 갖고 계신 서로 다른 달란트가 다양한 부문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불편부당,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 노동조합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노사관을 바탕으로 원만한 노사관계의 형성은 연세 발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이 총장에 입후보하면서 내세운 ‘품위있는 개혁’은 원만한 노사관계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단체협약에 임하며, 연세의 기쁨과 고통을 늘 노동조합과 같이 할 것입니다. 중요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시 연세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노동조합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변 >

가. 서남표 총장의 대학개혁 방안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교수의 정년보장(tenure) 심사를 강화한 것이며 후속으로 직원부문 개혁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일차적으로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KAIST와 같은 국립대학으로서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총장과 사립대학으로 재정을 자립해야 하는 연세대학교의 총장은 그 역할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남표 총장식 대학개혁을 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 KAIST는 신입교원에게 분야에 따라서 7천만원에서 3억원의 연구정착비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연세대학교는 1천만원 정도의 연구정착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느 정도 연구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교수들의 과중한 행정업무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는데, 공부 빼고는 다 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교수의 행정업무를 과감히 축소하여 교수의 교육·연구 시간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행정업무 참여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교수/직원에게 관계없이 보직인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현재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 준다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현저히 많아질 것입니다.

노동조합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2007. 12. 10

연세대학교
김 한 중